

의롭고 지혜로운 지도자의 삶 (잠 20:1~30)

서론

1. 19장에서는 일상생활(가정과 사회)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였음
2. 20장은 왕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

I. 지혜로운 왕의 의로운 통치 (20:1~8)

1. 포도주와 독주 멀리하라 (1절): 거만하게 하는 포도주, 떠들게 하는 독주에 미혹되면 어리석음
2. 왕에게는 강력한 힘 有 (2절)
: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사자를 건드린 것처럼 위험.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
/ 왕은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백성은 그에게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함
3.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but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킴 (3절)
: 다투지 않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익혀야 한다
4. 부지런함 (4절):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음.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
/ 모두를 위한 교훈. 풍성한 추수를 원하면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함
5.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음.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냄 (5절):
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원과 열망 길어내야 & 타인의 깊은 의도와 계획 통찰해야 함
6. 충성된 사람은 많지 않음 (6절): '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?' 자신이 충성된 자가 되고 또한 충성된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함
7. 후손을 복되게 하는 삶 (7절):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 (a blameless life). 그 후손에게 복 有
8. 왕의 가장 중요한 일 (8절): '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흠여지게 함'

II. 정의와 상거래 (20:9~19)

1. 죄의 보편성과 부정직한 상거래 (9~11절)

- 1) 인간 본성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 (9절):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음
'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?'
- 2) 부정직한 상거래 ('한결같지 아니한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') 여호와께서 미워하심 (10절)
- 3) 사람의 행동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줌 (11절): '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(알리다 or 가장하다)'

2. 지혜롭고 의로운 상거래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 (12~19절)

- 1)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 (12절): 귀와 눈은 계시의 수용과 지혜 교육의 필수적인 두 기관.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,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되게 해야 함

- 2) 하나님이 주신 눈을 잠들게 하지 마라 (13절)
: '잠자기를 좋아하면 빈궁해지고,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면 양식이 족하게 된다'
- 3) 시장에서의 위선에 대한 현장 묘사 (14절): '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함.' 상거래와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위선적인 말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
- 4) 가장 귀한 보배 (15절): 세상에 있는 금과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.
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어떤 보배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
- 5) 보증의 위험 (16절): 보증 때문에 생존을 위한 그의 '겉옷'까지 잃고 몸이 볼모 잡힐 수 있음
- 6) 불의로 취한 이득 피하라 (17절): '속이고 취한 음식물'은 사람에게 단 맛을 주지만,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(최악의 상황)
- 7) 경영과 전쟁에서 지혜자의 충고는 필수 (18절): '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. 지략을 베풀고 전쟁'
- 8) 멀리해야 할 사람 (19절): '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' (남의 비밀 누설), '입술을 벌린 자'

III. 악한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라 (20:20~30)

1. 가정에서 시작 (20,21절): 부모를 공경하라

- 1) (부모의 재산을 서둘러 취하려)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망함 (20절)
: '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' / 율법에서 부모 저주는 사형(출21:17, 레20:9, 신27:16)
- 2) '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' (부정직한 방법으로 빨리 잡은 유산)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음 (21절)

2. 악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(22~25절)

- 1)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(22절)
: '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.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.' (롬12:17,19)
- 2)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불의를 심판 (23절)
: '한결같지 않은 저울추' '속이는 저울' 여호와께서 미워하심
- 3)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의 길을 알 수 없음. 모든 순간마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 (24절)
- 4) 감정에 치우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(25절): '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덧'이 된다. 신중하게 서원하고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

3. 왕의 의로운 통치 (26~30절)

- 1)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시행 (26절)
: '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림'
- 2) 여호와의 등불로 자신 살피라 (27절):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혼 속에 '여호와의 등불' (하나님의 조명과 인도) 두셨다. '여호와의 등불'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올바르게 해야 함
- 3)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길 (28절): '인자와 진리'로 스스로 보호, 그의 왕위 견고함
- 4) 바른 사회를 위해 젊은 자의 힘과 늙은 자의 지혜가 필요 (29절): 젊은 자는 육체적인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인정받음 / 늙은 자는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지혜를 인해 존경받음
- 5) 의로운 통치를 위해서는 체벌을 통한 어리석은 자의 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(30절)
: '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(the inmost being) 깊이 들어간다'